

# 光山農樂

第32回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出演



• 일시 : 1991. 10. 16~10. 18 • 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경기장

光州直轄市



## 光州의 光山農樂



農樂은 농민의 樂이다.

이 농악이 어느때부터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기록이 없으므로 알 길이 없다. 다만 南道地方에서는 예로부터 「굿」, 「매굿」, 「매구」, 「풍장」, 「풍물」, 「걸립」, 「걸궁」, 「금고」 등으로 불리어지면서 정초에는 「마당밧이굿」을 친다고 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녔고, 농사철에는 勞動의 고단함을 덜고, 勞動力을 드높이기 위해서 논에서 두렁에서 치고 일했으며 또 마을단위 민속놀이에는 반드시 참여하여 신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따라서 농악은 南道人의 신명의 샘이었던 것이다.

우리고장 光州는 湖南平野의 젓줄인 榮山江의 상류인 極樂江을 끼고 비옥한 光山平野가 넓게 펼쳐져 있어서 농사의 고장으로 이름난 곳이다. 때문에 興겨운 가락과 다양한 陣法이 곁들인 農樂이 傳承되어왔다.

南道地方의 농악은 그 특징에 따라 左道굿과 右道굿으로 나누어지는데 光山의 마름마을 농악은 右道굿에 속한다. 따라서 그 복색은 무척 화려하고 그 가락과 陣法은 다양하고 興겹다.

이번에 선보일 光山農악은 右道굿의 여러 유형 중에서 판굿마당으로 그 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인사굿           (2) 5채길굿
- (3) 五方陣굿       (4) 허허굿
- (5) 左右치기       (6) 배밀기
- (7) 지심매기       (8) 콩동지기
- (9) 콩꺼기         (10) 가새틀임
- (11) 구정놀이

- ① 잡색과 무동놀이   ② 소고놀이
- ③ 통북놀이           ④ 쇠놀이
- ⑤ 장고놀이 ,

- (12) 허튼굿
- (13) 人事굿

光山農樂의 특징은 첫째로 복색이 무척 화려한데 쇠잡이들은 하얀 새털부포상모를 단 걸립을 쓰고, 걸옷은 오색동이로 된 반소매 참옷을 입으며 징, 장고, 북, 소고잡이들은 흰바지 저고리에 남색조끼고를 입고 머리에는 다섯개의 꽃송이가 달린 담배씨 고깔을 쓰고 삼색띠를 매었다. 둘째로 놀이꾼들의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들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 몸짓과 춤사위가 꾸밈이 없고 순수해서 무척 구성지다. 셋째, 소고놀이 춤사위는 남도지방 우도농악의 옛 몸짓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 넷째, 가락이 무척 다양하고 陣法이 여러 가지로 펼쳐진다.

光山農樂은 위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 南道人의 슬기와 멋이 온축된 民族音樂의 정수이기에 이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켜 계승하기 위해 출연한다.



고증및지도 : 지 춘 상

총 지 휘 : 차 행 선

단 장 : 이 판 선



①

②

① 허 허 굿

② 통북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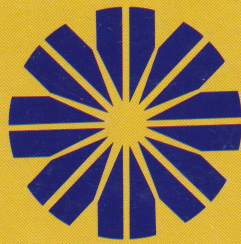
③

④

③ 장고놀이

④ 허 튼 굿





밝은 市民 活氣찬 光州